

# 石油·天然가스 부문에서 域内협력강화하는 ASEAN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

지역공동체로서의 ASEAN(東南아시아국가연합)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배경으로 경제자립화와 공업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경제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域内협력과 域外교섭력의 강화로 자체의 Identity를 점차 공고히 하고 있다.

ASEAN은 최근 1차산품의 불황등 경제적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石油·天然가스등 아직 채산성이 있는 에너지자원의 수출증대로 外貨收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석유가격인하에 따른 아시아지역에서의 石油戰爭에 대처하기 위해 ① ASEAN지역협력을 중심으로 각국간의 에너지협력을 강화, 석유의 域内우선구입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② 또 그 범위를 확대, 아시아·太平洋지역에서의 석유안정공급보장구상으로 발전할 성격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韓國, 日本등 域内の 석유수입국들은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ASEAN제국은 지금까지의 고도성장으로부터 안정성장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지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있다. 우선 1차산품과 에너지자원의 市況 침체 및 일부공업제품의 수출둔화가 어둡고 무거운 구름이 되어 지역전체를 뒤덮고 있다. ASEAN 각국은 모두 경제침체가 재정적자 증대, 경상수지악화, 대외채무증대를 가져와 국내정책상 금융·재정 긴축정책을 취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난 73~84년간 ASEAN 5개국은 연평균 6.4

%의 경제성장율을 계속했으나, 올해는 싱가포르(73~84년 연평균 7.9%)가 제로成長으로 떨어진 것을 비롯, 인도네시아(同 6.5%), 말레이시아(同 7%)도 5% 성장으로 둔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의 후퇴는 국내정치적 불안정요인이 되어 각국 정부는 모두 경제정책, 특히 내수진작과 수출 확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SEAN은 외화취득액이 큰 石油·天然가스·석탄 등 탄화수소자원의 개발강화, 수출증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朱錫, 天然 고무등 1차產品불황의 反動으로써 에너지자원부문의 재확대로 低成長移行期의 침체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 가입한 브루네이를 포함한 ASEAN 6개국은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모두 탄화수소자원이 부족되어 있다. 싱가포르도 자원무역의 중추센터기능에 경제력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자원의 개발강화, 국내이용 및 수출확대는 ASEAN각국의 공통된 경제적 정치적 전략목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ASEAN각국의 움직임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던 제11회 ASCOPE(ASEAN石油機構) 연차총회 및 同국제심포지엄의 토의, 보고를 통해 명확하게 나타났다.

ASCOPE 연차총회의 토의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ASEAN 석유공급보장협정과 ASEAN 에너지개발협력협정의 2개 초안이 심의된 점이다. 전자는

ASCOPE 설립(1975년) 목적인 석유위기시 域内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의 우선공급을 재확인하는 한편, 새로 공급과잉시 域内에 우선 공급한다는 구상을 추가하고 있다. 한편 후자는 탄화수소자원 개발강화를 위해 회원국의 자금·기술·서비스협력, 자원활용을 위한 석유화학공업의 추진, 에너지절약을 위한 협력 및 정보교환의 강화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어느 의미에서 블록경제志向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ASEAN에서 특히 공급과잉시 석유(原油·製品)의 域内우선구입 구상이 구체화된 것은 주목할만 하다. 회원국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네이는 유수한 석유·천연가스수출국으로 지금 까지 시장에서는 서로 강력한 경쟁상대들이었다.

ASEAN諸國의 주요 鑛物資源

		인도네 시아	말레이 시아	필리핀	싱가 포르	泰 國	ASEAN 合 計	ASEAN의 世界占有率(%)
朱 錫	埋藏量(千M/T)	3,480	4,330	—	—	5,560	13,370	36.1
	生産量(千M/T)	29	63	—	—	34	126	53.2
니 켈	埋藏量(千M/T)	62,800	—	16,300	—	—	79,100	34.7
	生産量(千M/T)	37	—	33	—	—	70	10.6
螢 石	埋藏量(千S/T)	—	—	—	—	6,300	6,300	8.4
	生産量(千M/T)	—	—	—	—	200	200	4.4
카 리 움	埋藏量(百萬S/T)	—	—	—	—	10,000	10,000	6.6
안 티 모 니	埋藏量(千S/T)	—	130	—	—	110	240	4.2
	生産量(千M/T)	—	1	—	—	3	4	5.2
銅	埋藏量(千S/T)	—	—	19,000	—	—	19,000	3.8
	生産量(千M/T)	56	25	297	—	—	378	4.8
天 然 가 스	埋藏量(10億ft <sup>3</sup> )	30,000	34,190	—	—	7,100	71,290	2.8
	生産量(10億ft <sup>3</sup> )	816	303	—	—	—	1,119	2.0
보 크 사 이 트	埋藏量(百萬S/T)	400	—	—	—	—	400	2.4
	生産量(千M/T)	1,042	350	—	—	—	1,392	1.6
原 油	埋藏量(百萬배럴)	11,003	1,400	—	—	—	12,403	2.0
	生産量(千배럴/日)	1,600	270	—	—	—	1,870	3.0
重 石	埋藏量(百萬lb)	—	107	—	—	75	182	1.5
	生産量(千lb)	—	200	—	—	4,002	4,202	4.3
크 롬	埋藏量(千S/T)	—	—	8,040	—	—	8,040	0.2
	生産量(千S/T)	—	—	600	—	—	600	5.3
亞 鉛	生産量(千M/T)	—	—	10	—	—	10	0.2
鐵 鑛 石	生産量(千M/T)	200	100	500	—	—	800	0.1

註：埋藏量은 1979年 現在의 確認埋藏量과 潛在量의 合計値이며, 生産量은 1979年度 生産量임.

〈資料〉 World Bureau of Metal Statistics, World Metal Statistics, Jan. 1981.

American Metal Market, Metal Statistics, 1980.

Bureau of Mines, Mineral Facts & Problem.

Gulf Publishing Co., World Oil, Aug. 15. 1980.

International Petroleum Encyclopedia, 1980.

또 지금까지 석유수입국이었던 泰國, 필리핀도 최근들어 가스나 일부 석유제품(휘발유·나프타)의 수출을 개시하는 등 ASEAN 域内の 에너지공급구조는 더욱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ASEAN 제국은 자원수출국으로서 비슷한 형태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競争의 역사가 되풀이 해왔다. 이와 같은 동질구조의 각국이 가장 전략적인 탄화수소자원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시장을 개방, 「共同市場」으로의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쿠알라룸푸르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域内자원 우선구입의 케이스를 몇가지 열거하고, 보다 긴밀한 협력체제를 호소했다.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니스의 압둘라·사레이社長은 구체적인 例로서 ① 싱가포르·말레이시아간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88년말 완공)하여, 싱가포르는 장기계약으로 말레이시아産 천연가스를 수입, 화력발전소연료로 사용하고, ②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의 석유정제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원유위탁정제를 계속하며, ③ ASEAN 공동투자계획으로 완공한 말레이시아 빈즈르(사라와크지역)의 비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암모니아를 필리핀이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④ 泰國灣의 국경해역에서의 석유·천연가스 공동탐사를 실시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①과 ②의 케이스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경제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양국 모두 자국의 기존프로젝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말레이시아는 신규정유공장건설을 보류하고, 싱가포르측도 석유화력발전소의 연료(B-C油)를 약 절반 정도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천연가스전환은 重油수요감소에 따른 것으로 싱가포르石油등 정유산업은 잉여重油를 輕油 등으로 바꾸는 2차정제시설의 신축설이 필요하게 된다.

ASEAN 域内자원우선구입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투자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공업화부문에서의 중북투자를 피하고 수평분업을 지향해온 ASEAN의 산업협력은 지금까지 각국의 자국 투자우선주의가 강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ASEAN은 새로 에너지 부문에서의 域内협력을 경제협력면에서의 핵심과제로 내걸고 있는데, 앞으로 日程에 올라있는 ASEAN석유공급보장협정의 조건, ASEAN수뇌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계획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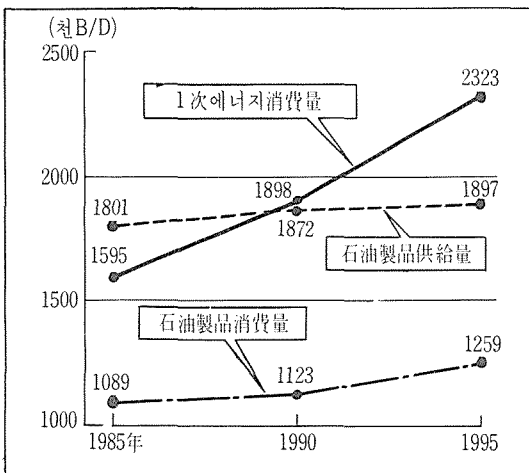
「바이·아세안」(ASEAN의 域内자원 우선구입)의 구호는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석유증산, 가격인하의 극적인 전략전환과 시기적으로 합치되고 있다. 中東의 에너지자원은 아시아·태평양시장에의 침투를 강화하고 있으며, ASEAN 산유국도 外貨收入확보를 위해 석유가격하락을 메꾸려는 증산과 판매확대에 나서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원유생산량을 종전의 42만B/D에서 1월부터 51만B/D로 대폭 확대했다. 인도네시아도 원유생산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이 공급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泰國, 필리핀등 석유수입국은 수입석유의 감축과 代替에너지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ASEAN의 域内석유시장(수출시장)은 확실히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바이·아세안政策」이 전면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東南아시아에서의 석유판매경쟁의 격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ASEAN석유수출시장의 축소를 고려할 때 바이·아세안政策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바이·아세안政策의 대상을 極東을 포함한 아시아·太平洋시장으로 확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의 수브로토礦物에너지相은 ASCOP

ASEAN의 에너지 豫測



註: ASEAN회원국중 브루네이를 제외한 5개국 합計

〈資料〉ASCOPE經濟委員會

E심포지엄에서 ① 석유수급은 오는 90년대에는 다시 팽박해질 것이며, ② 그 시점에서의 ASEAN, 극동을 포함한 西太平洋지역의 수급균형을 보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수요증가분이 域内공급증가량을 상회, 中東등 域外供給源에 대한 의존도가 현재 이상으로 높아지고, ③ 아시아·太平洋 지역의 각국이 서로 협력적이며 긴밀한 관계를 가진 지역내에서의 석유·가스공급원을 늘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공급안정에 도움이 되며, ④ 域内산유국으로서는 신규자원개발을 위해서도 域内수입국이 현재와 같은 공급과잉期에는 域内구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아시아·太平洋域内 우선구입을 제안하고 있다.

ASEAN산유국으로서는 ASEAN 域内우선구입만으로는 시장을 확보할 수 없다. ASEAN 域内우선구입과 같은 방법으로는 韓國, 日本, 台灣을 포함한 아시아·太平洋지역까지 범위를 확대, ASEAN석유의 우선적 활용을 주장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수브로토石油相의 제안은 아시아·太平洋지역의 域内석유수입국이 공급과잉시에 ASEAN석유를 우선 구입해 줄 경우 공급부족시에는 반대로 域内수입국에 대한 안정공급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상호안전보장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지역안전보장구상에는 몇가지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原油의 域内공급량이 수요량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自給이 어렵다는 점이다. ASEAN

에 極東, 中共, 濠洲를 추가하여 수브로토石油相이 밝힌 西太平洋지역의 원유생산량(84년)은 1천 20만B/D인데 域内산유국의 공급량은 5 백30만B/D로 자급률은 약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둘째는 수입국이 값싸고 質만 좋으면 어디서라도 구입한다는 자유시장주의를 수정하여 域内우선주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域内자급율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자급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입국측에서 볼 때 域内수출국의 판매조건이 다른 공급원에 비해 유리해야 하고 또 자원매장장이 풍부해야 하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급율향상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서로 관련성이 높다. 석유·천연가스매장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탐광·개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석유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의 석유개발투자는 리스크가 크다. 그러나 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매장량은 늘어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증산도 기대할 수 없다.

아 물론 ASEAN이 석유·천연가스부문에서 域内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전개는 그동안 이 지역과의 자원협력을 꾸준히 추진해온 우리나라로서도 예의 주시,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특히 ASEAN은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원자재수입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부존자원의 성공적인 개발수입여하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원자재의 안정공급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청탁풍조 배격하여

## 명랑사회 이룩하자